

# 소방차 진입 막는 '위험한 말뚝'

## 충장로 8곳 자물쇠까지 채워...소방서 "화재뎀 참사 우려"

광주시가 동구 충장로 진입로 8곳에 차량 통제용 말뚝을 설치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 구조·구급차량의 통행을 막아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장로 특화의 거리'를 조성 중인 광주시는 최근 1가 입구·우리은행 금남로지점·충장파출소·무등극장·충장서림·광주우체국 앞 등 8곳에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볼라드·bollard)인 이동식 스테인리스 말뚝(지름 20cm·높이 40cm)과 고정식 화강석 말뚝(너비 40cm·높이 30cm)을 설치했다.

상가 변경회 측이 "바닥재 교체뿐 아니라 낮 시간대 차량 통행을 막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때마다 불었다 할 수 있는 쇠 말뚝은 상인들의 차량 통행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59분까지 철거되며, 다른 시간에는 자물쇠로 채워 차량 통행을 완전 차단한다.

열쇠는 충장로 상가변영회 사무실(금남로 3가 제일은행 인근)에서 관리하며, 화재·사고가 나면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위해 상인들이 현장에 나와 자물쇠를 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말뚝이 설치된 곳이 변영회 사무실에서 20~200여m 떨어져 있고, 촌각을 다투며 출동하는 소방차가 열쇠를 가지고 오는 상인을 기다려야 하는 꼴이 됐다.

또 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실시되는 충장로 특화의 거리에 쇠 말뚝을 고정하고 있는 자물쇠가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이에 따라 광주

시에 충장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고정식 대리석 말뚝 철거에는 합의했으나, 이동식 쇠 말뚝의 자물쇠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시는 충장로 1가·제일은행·충장파출소 앞 등 3곳의 화강석 말뚝을 지난 24일 이동식 쇠 말뚝으로 모두 교체했지만, 27일 현재까지 쇠 말뚝 자물쇠가 있어 지난 5년 동안 35건의 불이나 3명이 다치고 3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한 번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커질 수 해왔다.

충장로는 7~8m 너비로 펍차(폭

8m)와 고가사다리차(폭 11m) 같은 필수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화재 취약지역이기도 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1~2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진입로에 말뚝까지 설치돼 있으면, 출동시간이 크게 늦어져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소방서는 이동식 쇠 말뚝의 자물쇠를 없애지 않을 경우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소방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말뚝에서 가까운 상가와 소방서에도 열쇠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충장파출소 앞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 광주시가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충장로 일대 8곳에 이같은 쇠 말뚝을 설치해 자물쇠(점선 부분)를 채웠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뇌물수수·근무중 도박·음주 뺑소니 '탈선 경찰' 잇따라 적발

광주·전남 일부 경찰관들이 뇌물수수, 근무중 도박,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지검은 27일 "사건 처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 등)로 광주 북부경찰서 A(36)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23일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43)씨의 사건처리를 도와 주겠다고 김씨의 누나(45)에게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장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잘 처리되도록 뜯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일이 잘 해결되면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해남경찰서 B(49) 경위도 근무시간인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해남

군 해남읍 모 오피스텔에서 수형조합장 등과 관돈 200여만 원을 놓고 '고스톱' 도박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앞서 같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 계장인 C(54) 경위는 지난달 6일 밤 9시20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해남읍 구교리 공공도서관 앞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했다. 해남경찰은 운전자가 C경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날 아침에야 음주측정용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해남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매실주 1잔만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음주수준은 없었다"면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 21일 다른 경찰서로 전보발령됐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입시 부담 여고 3년생 투신 자살

가정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고 3년생이 대학 입시 부담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6시에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 고등학교 3학년 A(17)양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전날 밤 10시에 TV를 보던 중 엄마가 "고 3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며 꾸중을 하자 "혼자 서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고 과외를 시켜 주면 공부를 잘 할 것 아니냐"며 말다툼을 한 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학급에서 중

상위권인 A양이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기초가 부족한 영어와 수학 과목 과외를 받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보내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쁜 대로 행동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잘못한 것 없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계속 버틸 자신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복도식 배란다에 A양의 안경이 놓여있고 슬리퍼 자국 흔적이 여겨지 남아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학진학 문제 등을 비관하다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필리핀 여성 공연 대신 접대부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7일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온 뒤 유혹중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조모(49)씨를 구속하고 유혹중점 업주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을 통해 국내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 25명을 강제추방토록 조치.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 8월 'G 연예기획사'와 'Z 프로모션'이라는 외국 공연자 파견·알선 업체를 차려놓고 필리핀 여성들을 유혹중점에 불법 취업시켜 2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조씨 등은 다른 사람들의 공연을 녹화한 자료를 이용해 공연추천서와 예술홍빙비자(E-6)를 발급받은 후 파견계약서를 위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는 것.

필리핀 여성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급여의 절반 가량인 50만~60여만원을 매달 빼앗겼다고.

연합뉴스

# "온 마을 비워도 도둑 걱정 없더랴"

## 휴가철 빈집 사전신고·귀중품 보관제 성과

나주시 노안면 영안마을(27가구) 주민 40여 명은 지난 25일 경찰에게 마을을 맡고 모처럼 바깥 구경을 했다. 충남 공주에서 주민 정병남(65)씨가 아들(25)을 결혼시켜 이웃들 전체가 예식에 참석할 것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안도 명사십리로 해수욕을 떠났다가 빈집 사전 신고를 했으며, 나주경찰서 경찰 순찰차가 마을 입구에서 특별 근무를 펼쳤었다. 지난 15일 광복절 체육대회를 열

일 여행을 다녀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올 휴가철 시범실시한 농촌지역 절도 예방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사전 신고제'와 '귀중품 보관제'에 각각 278건·74건(4억7천여만원)이 접수된 것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특별 순찰을 벌이거나 지구대 간이 금과 등에 현금과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뒤 돌려줬다"며 "오는 추석 때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 과 정: 주반(10:00~13:50) / 야반(19:00~22:30)
-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 용: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 교수진: 한용호·박한수 교수(저자직강)
- 기 타: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방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입)모집중 (개강 9월 2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 과 정: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 타: 훈련수료 후 개인별 합금(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합격:세무 공무원 1800원을 하반기, 내년 상반기 2회 추가 모집예정!! =

**7·9 급 공무원**

= 전직중 완전대비 =

전·일반행정·교육행정 [합격대비] 개강

남 문제풀이반 (개강) 9월 1주 야반 모집 (예약수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9월대개강** 1차개강 9월 1일 / 2차개강 9월 3일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시험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DEET 전문강사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8088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펌피어 유지비는 1/3입니다

1/3이 줄은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영·난방 에어컨 펌피어는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난방까지 책임지었습니다.

100% 절감

등유기준 / 전기히트펌프 30% 절감 / 도시가스 63% 절감 / 펌피어 77% 절감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 ▶ 업계 최초 펌피어 특별 리스료 0원 제공
- ▶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의 50% 돌려 받습니다
- ▶ 무이자 할부 판매(12개월)
- ▶ 심상, 태우, 기온제어 12, 24, 36개월 연부 가능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한온가습기 공기청정기

▶ 에어컨 특별 할인 판매 실시

스탠딩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 / 벽걸이형 에어컨 (8, 10평형)

공사:냉·난방·에어컨

**TEMPIA**

062)955-4222, 080-701-7117